
멕시코: ‘때늦은’ 진보 정권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선 승리 의미와 한계

마시모 모도네시

멕시코 국립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교수

원제와 출처: Massimo Modonesi, “México: el gobierno progresista [tardío]. Alcances y límites de la victoria de AMLO”, *Nueva Sociedad*, No. 276, julio-agosto de 2018, pp. 50–57.

핵심어: 선거, 좌파, 후기신자유주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암로(AMLO), 멕시코

1988년부터 2006년까지는 대선을 치를 때마다 논란이 일었는데(부정선거라는 견해가 팽배했다), 2018년 대선에서 처음으로 멕시코 우파의 패배가 확실시되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감격한 나머지 거리로 쏟아져나와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일명 AMLO¹⁾)의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세 번의 도전 끝에 득표율 53%를 획득하고, 전국 32개 주 가운데 31개 주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행동당(PAN) 후보

1) 암로(AMLO)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이다. 멕시코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암로라고 부른다. -옮긴이

리카르도 아나야는 22%를 얻었고, 제도혁명당(PRI)의 후보 호세 안토니오 메아데는 16%를 얻는데 그쳤다. 이로써 1929년부터 2000년까지 70년 동안 연속 집권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 다시 승리하여 집권 여당이 된 제도혁명당은 역사적인 패배를 맞보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당선을 축하하기 위해 소칼로(Zócalo) 광장에 집결한 사람 가운데는 좌파가 적지 않았다. 좌파는 이런 상황이 과거의 대중 집회와는 다르다고 의식하고 있었지만, 서민적이고 반(反)과두제적인 성향이 없지는 않은 일종의 설욕전으로 여겼기에 일시적으로나마 통쾌한 기분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좌파가 옛 생각에 젖어 투쟁가 “단결한 민중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El pueblo unido no será vencido)를 부르는 동안, 열성적인 오브라도르 지지자들은 “오브라도르와 함께한 것은 영광이다”라고 광장이 떠나갈 듯이 외쳤다.

지난 7월 1일 대선의 역사적 의미는 이번에 승리한 선거 연합의 명칭, ‘우리 함께 역사를 만듭시다’에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당선으로 지난하고 곡절 많은 절차적 민주주의 이행 과정은 사실상 정점을 찍었다. 중도좌파의 야당이 승리함으로써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룬 것이다. 1988년에 등장한 이 중도좌파는 제도혁명당 집권 시절 제1야당 자리를 놓고 민주행동당(PAN)과 경쟁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민주행동당은 제도혁명당 정권에서 책임 있는 야당이 되었고, 부상하는 신자유주의와 강압적인 권위주의를 용인했다. 신카르테나스주의(neocardenismo)²⁾와 민주혁명당이 제시한 대안은 발전주의로 복귀하자는 것이었으나 강조점은 사회 정의에 있었다. 게다가 불평등의 원

2) 신카르테나스주의는 1988년에 등장한 정치 운동이다. 1930년대 멕시코 대통령을 지낸 라사로 카르테나스(Lázaro Cárdenas)의 좌파적이고 민족주의 운동을 이어 받아 멕시코 사회를 개혁하겠다는 이 운동은 라사로 카르테나스의 아들 콰우테모크 카르테나스(Cuauhtémoc Cárdenas)가 주도했으며, 1989년 민주혁명당(PRD) 창당으로 구체화되었다. - 옮긴이

인 진단에서도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선 공약이나 국가쇄신운동당³⁾과 차이가 있었다. 민주혁명당은 부패를 구조적 요인이자 원인으로 간주했지, 국가쇄신운동당처럼 권력 균형이나 권력 관계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다. 1988년에 등장한 민주 혁명 계획은 절차적 민주주의로의 이행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담고 있었다. 바꿔 말해서, 대의제이건 직접민주주의이건 민주주의 실현의 조건으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주장한 것이다. 나중에 민주혁명당은 이러한 이상적인 지평을 포기하고, 관변 정당으로 변신함으로써 2013년 이래 사실상 죽은 정당이나 다를 바 없이 되었다. 최근 선거에서는 민주행동당에 기생함으로써 국가쇄신운동당이라는 쓰나미 앞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5년 전에 창당한 국가쇄신운동당은 민주혁명당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기반과 조직과 정신을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끌어왔고, 그 결과 지난 7월 1일 선거에서 과거 좌파나 중도좌파의 득표율을 훨씬 상회하는 득표율을 달성했다.

이번 선거가 정권 교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고 마무리되었으나(아울러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대한 우호적인 침묵도 마무리되었다), 정권 교체 자체가 진보의 역사적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권에 거는 기대는 어느 때보다 한층 높아졌다. 이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멕시코의 전통적인 ‘개혁 진영’의 선두에 서겠다고 다짐하고, 자신을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⁴⁾,

3) 국가쇄신운동당(Movimiento Regeneración Nacional)은 2011년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창당한 정당이다. 머리글자만 따서 모레나(Morena)라고 부른다. - 옮긴이

4) 호세 마리아 모렐로스(José María Morelos, 1765~1815)는 19세기 초 멕시코 독립운동을 이끈 농민 운동 지도자로 이달고(Hidalgo) 신부와 함께 국부 대접을 받는 인물이다. - 옮긴이

베니토 후아레스⁵⁾, 프란시스코 마데로⁶⁾, 라사로 카르데나스⁷⁾의 후계자라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자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그리고 새로운 ‘도덕 현장’을 제정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통해서 앞서 언급한 사람들의 민주적이고 국가지도자적인 품모와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 이런 태도는 어느 좌파와도 거리가 멀다. 게다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급격한 개혁보다는 ‘평화적’이고 ‘따뜻한’ 개혁이 되리라고 말한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사기도, 속임수도 아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선거 공약이나 선거 연설에 따르면, 이런 개혁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가 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계기로 삼아서 위기에 처한 멕시코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반부패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공적인 도덕성의 실현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치안 안정, 국내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 모든 국민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잉여의 재분배라는 세 가지 국정 과제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아울러 사유 재산과 자유 무역을 존중하고, 정직한 기업주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지지자와 반대자를 설득하기 위해 이런 방정식을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고, 소칼로에서 역사적 환호를 올린 그날에도 귀에 못이 박히게 반복했다.

근래의 중남미 진보 정권에 대한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실용적 시각은 ‘반신자유주의’ 입장에서 두 걸음이나 후퇴한 것이다. 그 대신 강박적이라고 할만큼 도덕

5) 베니토 후아레스(1806~1872)는 원주민 출신의 대통령으로 프랑스라는 외세의 침입을 물리치고, 멕시코를 자주독립을 성취한 인물이다. -윤진이

6) 프란시스코 마데로(Francisco Madero, 1873~1913)는 독재자 포르피리오 디아스에 대항한 사업가이자 정치인으로, 1910년 멕시코혁명의 기폭제가 된 인물이다. -윤진이

7) 라사로 카르데나스(Lázaro Cárdenas, 1895~1970)는 1930년대 대통령이 되어 친원주민 정책, 애히도 설치, 석유산업 국유화 단행 등 굵직한 업적을 남겼다. 현재까지도 멕시코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통령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윤진이

적인 문제를 강조했다. 바로 이 문제로 많은 중남미 진보 정권이 좌초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대통령 당선자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비록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도혁명당을 분쇄했지만, 치안 안정과 폭력 근절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런 과제를 해결하려면 숏한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어느 면에서는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멕시코인에게 각인될 수 있는 기회이자 현 멕시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다. 이런 시급하고 민감한 현안 해결(최우선 과제로, 경제적·재정적 변동과도 관계가 있다)의 여부에 따라서 몇 달 후에는 신정부의 지도도와 안정성이 평가받을 것이다. 모두가 기대하는 정부의 단호한 조치, 즉 고위 공무원의 월급과 판공비 삭감을 제외하면 여타 대선 공약(이를테면, 농촌 재건, 학생 장학금, 서민주택 건설, 성인 지원 등등)은 부패 근절만큼 시급하지는 않다.

한편, ‘역사를 만들자’는 공약은 ‘다함께’(juntos) 참여하는 국민, 즉 모든 ‘민중’을 끌어들었다. 이 말은 선거 구호 특유의 다면성과 의도적인 모호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어렵더라도 추진 주체와 혜택을 받는 주체를 명확하게 구체화해야 한다. 2006년 이래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공약은 서민적이고 반(反)과두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었다. 이런 요소는 지도자가 곧 민중이라는 등식으로 정립되었고, “민중만이 민중을 구할 수 있다”는 구호로 나부꼈다. 아울러 국가쇄신운동당은 물론이고 선거운동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지휘했다는 점을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사인화(私人化)는 공식 선거운동 종료 행사를 암로페스트(AMLOFest)라고 명명하고, 별칭 암로를 붙여 해시태그(#amlomanía)를 만든 것에서 절정에 달했다. 또 로페스 오브라도르 지지자와 더불어 매우 다양한 성향의 그룹이 있는데, 이를테면 국가쇄신운동당의 지도부, 국가쇄신운동당과 연합한 군소정당(마오이즘 계열의 노동당과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사회화합당), 선거 막바지에 제도혁명당, 민주혁명당, 민주행동당을 탈당하여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넘어온 그룹이 있다. 사회

진영에서는 기업인을 비롯하여 보수 중산계급이 광범위하게 참여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선거 운동에서 기업인의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주의를 기울였다. 어쩌면 2018년 12월 대통령 취임식 때 기업인의 협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들 각 영역은 자기 몫을 주장할 것이고, 계급 균형과 통치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각 영역의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비중을 따라 자기 몫을 챙길 것이다. 53%라는 압도적인 지지는, 최근 20년 동안 실정을 저지른 정당에 대한 반감과 염증이 표출이지만, 대다수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적·문화적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에서 형식적인 연합 뒤에는 무척이나 다양한 성향의 유권자가 웅크리고 있고,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선거 운동 기간 막바지의 분위기에 이끌려 로페스 오브라도르를 지지했다. 이때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지지율은 이미 확고한 우세를 점했고, 경쟁 후보들은 2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선거 연합의 명칭 ‘다함께’(그렇지만 잡동사니 같은)는 여전히 포퓰리즘의 틀이다. 이런 틀은 이것저것 덕지덕지 모아서 만든 것으로 정세에 따라 모호한 담론으로 채워야 하는데, 이제부터는 지도자의 중재력과 결단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임시방편적인 균형과 불안정한 동맹이라는 틈바구니에서 멕시코 국가주의와 대통령제의 전통과 문화(카리스마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곡예술)에 의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선거 운동 기간 내내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권이 ‘무한한 제도혁명당 정권’(priismo infinito)의 신 버전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무한한 제도혁명당 정권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민행동당을 포위했고, 1997년부터는 민주혁명당을 포위했다. 우파는 에체베리아⁸⁾ 정권의 망령을 떠올리면서 로페스 오

8) 루이스 에체베리아(Luis Echeverría, 1922년 생)는 1970년부터 1976년까지 멕시코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다. 1968년 내무부 장관으로 학생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데 앞장섰다. -옮긴이

브라도르가 ‘넓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에체베리아는 1968년 이후 방향을 선회하여 통제된 민주적 개방, 적극적인 국가 투자(특히 석유 호황기 시기), 반기업적이고 제3세계주의적인 수사를 지향했다. 이와 동시에, 좌파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이런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하리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1970년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페스 오브라도르는 제도혁명당의 개혁주의 분위기에서 성장했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에 걸쳐 집권한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보다 훨씬 온건하고 소박한 스타일을 선호한다.⁹⁾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대선 공약이 노출한 문제점, 즉 신자유주의 모델을 유지하지 아니면 제한적인 국가 규제와 취약 계층을 위한 재분배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차치하고라도, 민주주의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변화를 기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 민주주의가 보나파르트주의적인 국민투표로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최고 지도자가 대중적 지지를 앞세워 집권 연장이나 기타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묻고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가쇄신운동당의 여론 조사 맹신(후보자 선출이라든가 선거 운동의 승리 분위기를 다지는 데 활용했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권의 새로운 스타일을 보여주는 전조일 수 있다. 여기서 민중은 단지 여론을 추수하는 존재일 뿐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쇄신운동당은 ‘반(反)부정선거 기구’이자 선거용 정당으로 창당되고 성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정당 경험이 전무하다. 따라서 이 정당의 기초 조직과 지도부는, 최근 중남미 진보 정권에서 국가쇄신운동당과 유사한 정당이 그러했듯이, 연방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동력

9)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José López Portillo, 1920~2004)는 에체베리아를 이어 1976년부터 1982년까지 멕시코 대통령을 지냈다. 로페스 포르티요는 연설에서 강력한 표현을 구사했으며, 제도혁명당의 포퓰리즘, 발전주의, 통합주의를 재정비했다. - 옮김이

전달 벨트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좌파 가운데 몇몇은 지난 7월 1일 우리가 성취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때늦은 멕시코 진보 정권의 등장은 밑으로부터 참여라는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결권이 개화하는 계기로 작용하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역사의 한 장을 여는 개혁의 문이 열릴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멕시코가 중남미 진보 정권의 특징인 ‘수동적 혁명’의 또 다른 버전 앞에 있거나 않은지 모를 일이다.¹⁰⁾ 여기서 수동적 혁명의 몇 가지 요소를 지적하면, 보나파르트적인 스타일과 조치,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라는 정치적 수사, ‘민족적이고 민주적인’ 계급간 동맹, 민중 요구를 보수적 기획으로 포섭하기, 민중 지도자가 국가 기구의 대리인으로 변질될 가능성 등이다. 이와 더불어, 수동적 혁명은 밑으로부터의 활동을 ‘수동화’할 필요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하위 계급 부문의 동원을 중단하고, 수정된 통치 계약을 수용하고 충성을 바치는 대가로 개혁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2006년의 상황이었다. 이때 멕시코와 중남미에서 반신자유주의 투쟁이 고조됨으로써 지배 계급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힘의 역학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멕시코는 그렇지 못하다. 사회 해체 과정과 우경화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 우경화는 정부와 주요 정당의 계급 지향성, 정치계에 만연한 부패 및 멕시코 전역의 고질적인 폭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 특히 독자적이고 조직적인 민중 부분은 현재의 사회정치 분위기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종종 위협을 받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해서 이제는 동원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해산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취약성은 이번 선거 국면에서 사파티스타 대선 후보 마리추이 파트리시오(Marichuy Patricio)의 좌절로 명확해졌다.¹¹⁾ 마리

10) M. Modonesi: *Revoluciones pasivas en América*, Itaca, Ciudad de México, 2017.

11) 멕시코 선거법상 마리추이 파트리시오가 무소속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려면 유권자 86만 6천명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마감 시한까지 27만 5천명밖에 추천을 받지 못해서 대선 후보로 등록하지 못했다. -옮긴이

추이 파트리시오는 원주민 통치 위원회(Concejo Indígena de Gobierno)가 반신자유주의와 반자본주의 투쟁의 결속 지점으로 여겨 대선 후보로 추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이고 전투적인 주요 사회 단체가 로페스 오브라도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기도 하다. 독자적인 사회 단체는 예비 선거 국면에서 전술적으로 방어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는데¹²⁾, 이는 정치적 기회 및 위기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일부 보수 세력을 포용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및 국가쇄신운동당의 태도를 확인한 결과였다. 적극적 지지든 수동적 지지든 무언의 지지든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우세는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진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심리를 낳았다. 그렇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는 명명백백하게 중도로 기울었다(이미 2012년 대선에서 감지된 성향이었다). ‘국가 계획 2018~2024’는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2017년에 펴낸 책에¹³⁾ 근거한 것으로, 본질적으로 신자유주의를 지속하겠다는 약속과 몇 가지 사회정치적 제안 및 기간 산업에 대한 국가 개입 구상을 담고 있다. 독자적인 사회 단체의 특수한 이해와 요구에 대한 언급은 매우 간소할 뿐만 아니라 빈약하기도 하다.¹⁴⁾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자료가 있는데, 바로 국가쇄신운동당은 민주혁명당과는 다르게 독자적인 노동조합이나 운동단체와 어떠한 전략적 연대도 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농민 단체와 관계를 맺고, 선거 국면에서는 몇몇 지도자나 인물¹⁵⁾과

12) 이하의 논지는 필자가 멕시코 국립 대학교의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독자적인 사회 단체의 성향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13) A. M. López Obrador: *2018 la salida. Decadencia y renacimiento de México*, Planeta, Ciudad de México, 2017.

14) 독자적인 사회 단체와 관련된 국가 계획은 대부분 농민 운동이나 원주민 운동과 관계가 있지만, 최저 임금 인상, 주택 건설, 학생 장학금 지급, 이른바 교육 개혁의 철회, 멕시코시티의 신공항 건설 등도 다루고 있다.('국가 계획 2018~2024', <http://proyecto18.mx/>)

15) 이틀테면, 게레로주(州)의 자치경찰 지도자 네스토라 살가도, 미초아칸주(州)의 자경대 지도자 호세 마누엘 미렐레스, 광산노동조합 지도자 나폴레온 고메스 우루티아이다.

유대를 맺었다는 점이다. 국가쇄신운동당이 다양한 사회 운동이나 광범위한 연대에 무관심하다는 증거는, 극우보수주의자이자 국민행동당 당원이던 마누엘 에스피노를 선거 운동에서 ‘사회시민단체 조정자’로 임명한 데서 드러난다. 이것이 선거전에서 중도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일시적인 조치인지 국가쇄신운동당의 본질적인 측면인지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처럼 다른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또는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제휴와 충성 관계가 조합주의적이고 후원주의적인 일탈(민주혁명당을 지배하던 경향으로, 결국 정당으로서 기능을 못하도록 작용했다)로 변질되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시민적인 제휴를 촉진하며 신생 정당인 국가쇄신운동당의 정체성 구축에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특정 사회운동과 유기적인 동맹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면,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국가쇄신운동당의 좌파적 속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회의가 감지되고 있다. 또한 심층적인 의미의 ‘역사 만들기’(이것이 신자유주의의 극복이든 아니면 진정한 정권 교체와 본질적인 민주주의 이행이든)에 관해서도 낙관론을 공유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하위 계급의 중요 단체와 함께하지 않는 역사 만들기가 과연 진정으로 ‘다함께’인지에 대한 깊은 회의론이 있다. 그러나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비록 좌파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우파와는 구별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수많은 독자적인 사회 단체의 담론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대선 공약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이전 정권보다는 덜 나쁜 정권이고, 현 상황과 단절을 의미하며, 멕시코 상황에 책임이 있는 우파 정치 세력의 대안일 수 있다는 논리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찾으려는 경향을 띄고 있다. 투쟁적인 사회 단체나 집단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설득하지 못한 후보자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이고 역사적인 이번 대선 결과를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미 있는 자료가 하나 더 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대통령에 당선될 뻔한 2006년과 다르게 이번에는 아무도 또 암묵적으로도 기권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표하러 가자는 분위기가 팽배했고, 로페스 오브라도르도 이를 독려했다. 독자적인 좌파의 고유한 기치는, 투표로 집권한 정부는 어떤 정부이든 조직적인 투쟁의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국내 상황과 로페스 오브라도르 후보의 특성을 읽은 후에 형성된 일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사회 단체와 운동 단체는 공통된 행동 지침이나 전략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입장을 표명하지도 않았다. 적지 않은 단체가 로페스 오브라도르 측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공개적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¹⁶⁾ 그러나 또 다른 많은 단체는 투표 참여 문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았다. 이 두 번째 그룹 중 어떤 단체는 우파에 투표하지 말고¹⁷⁾ 좌파에 투표하라고 권하는¹⁸⁾ 뜻에서 선거 유세 참석에 대해 모종의 메시지를 내놓으려고 한 반면에, 다른 단체는 침묵을 지키면서 후보자나 후보자 주변 인물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 이는 해석하기 곤란한 침묵이자 어떤 입장에도 속하지 않는 침묵이지만, 귀를 기울여만 한다. 단지 부분적으로만 “침묵은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침묵 속에서도 수많은 사회·환경적인 투쟁과 노동자 투쟁의 자율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기류가 있다. 또 시민사회에서는 인권 옹호 단체나 희생자의

16) 이런 단체는 주로 21세기 아얄라 계획에 관련된 농민 단체, 광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연대한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23년 동안 조합장을 지낸 엘바 에스테르 고르디요(Elba Esther Gordillo)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국 교육 노동자 조합, 멕시코 전력 노동조합의 단위 노동조합, 게레로주(州)의 자치경찰 노동조합도 이런 경향을 띠었다.

17) 전국 교육 노동자 조합 총회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투표하자는 방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가 반동적인 교육 개혁을 폐지하겠다고 천명한 이후 일부 산하 단체는 다른 후보보다는 로페스 오브라도르쪽으로 기울었다.

18) 일례로, 멕시코 국립대학교 노동조합이 여기에 속한다.

단체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다. 젊은이와 대학생 집단의 지지도 없고¹⁹⁾, 여성주의 단체의 지지도 없다는 점은 또 다른 징후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가장 활동적이고 전투적인 부문인 대학생과 여성주의자는 의도적으로 이번 대선 및 로페스 오브라도르의 선거운동과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침묵을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이 바로 정치적·국가적 질서, 즉 국가쇄신운동당이 장악하고자 열망하는 질서를 배격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행위자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선 공약의 보수적 측면을 고려할 때(대선 공약 뿐만 아니라 이미 발표한 내각의 구성을 볼 때), 개혁의 범위는 우파의 저항에도 얼마간 영향을 받겠지만 그보다는 사회 운동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기존 단체의 피드백으로 이뤄진다. 비록 역사적·정치적 상황이 요구하는 힘과 규모를 획득하려면 기존 단체의 범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박병규 옮김

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앙케이트 조사를 보면 대다수 젊은이들은 로페스 오브라도르에게 투표했고, 제도혁명당과 국민행동당에 대해서는 깊은 반감을 표명했다.